

新羅 高塚의 殉葬*

金龍星**

목 차

- I. 서언
- II. 신라의 순장고층
 - 1. 순장의 시행시기
 - 2. 순장묘의 검토
- III. 순장자의 배치형태
- IV. 주피장자와 순장자의 신분
 - 1. 주피장자의 신분
 - 2. 순장자의 신분
- V. 결어

< 요약 >

영남지방의 순장은 각지에 방어적인 성격의 토성의 등장, 도질토기의 발생, 경주식 목곽묘와 김해식 목곽묘의 분화가 발생하는 등 어떤 획기적인 사회변화를 수반하고 있던 시기인 3세기말 4세기초에 발생하여 고층단계에는 신라 중앙인 경주와 지방 고층에 보편적인 장법으로 행해진다. 이후 6세기 신라의 체제정비를 통한 중앙집권국가로의 출발을 기점으로 해서 점차 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순장자를 어떻게 죽였는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단지 순장자의 배치형태는 5개의 형식(북천동형, 경주형, 임당형, 달성형, 양산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바 이 형식은 묘제와 관련해 볼 때 순차적으로 발생해서 유행하고 낙동강 하류, 중류, 경주, 경주의 주변 등으로 지역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신라에서 순장을 동반하는 묘의 묘주는 착장유물을 중심으로 한 계층화를 통해 볼 때, 경주의 경우 왕과 왕족, 최고의 귀족 등으로, 지방의 경우 소국단위 또는 별읍단위의 누세대로 계승되는 간층과 그 가족 집단이 된다. 또 경주를 중심으로 볼 때, 경주에서 외부로 향하는 제1의 결절지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의성, 경산, 대구, 창녕, 양산, 보다 이른 시기의 부산)들의 묘가 그 외 지역들의 묘들에 비해 순장자 수가 많은 특징이 있고 이것은 착장유물과 부합되어 당시 지방의 간층들이 위계화 되어 있었음을 알려준다.

착장유물 등으로 분석한 결과 신라의 경우 노예가 순장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순장자는 모두 근시적 존재인 시동, 시녀, 호위무사, 재산관리자 등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노예가 순장되지 않았음은 일반적으로 노예의 순장이라고 해석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에 배치되는 것으로 당시의 사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제46회 춘계학술발표회의 발표문을 수정 기고한 논문임.

** 영남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원

I. 서언

순장(殉葬)은 사전적으로 “임금이나 남편의 장사에 신하나 아내를 산 채로 함께 장사지내는 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처첩이나 노비를 주인공과 함께 묻는 장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사된 신라·가야의 순장묘들 가운데는 처를 남편의 장례에 묻는 경우는 조사된 적이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순장을 시동, 시녀를 포함한 근신자와 노예를 주인공의 죽음시 함께 장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순장은 종교적 행위의 하나로 시작된 희생의 한 범주로 볼 수 있다. 인간을 제의의 제물로 인식하여 희생하는 것은 人牲과 人殉으로 나누어진다. 人生이란 원시종교의 사상에서 기원한 것으로 祖靈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개념으로 시행되는데 비하여 人殉은 주인이 사후에도 인력을 사용한다는 개념에서 시행되는 것이다¹⁾. 따라서 우리가 순장이라 한다면 人殉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주인의 죽음시 스스로 목숨을 끊는 自殉은 다른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권오영의 지적과 같이 죽음의 同時性, 強制性, 순장자의 주인에 대한 從屬性을 순장의 필수 요건²⁾으로 파악하여 논리를 전개한다.

순장은 노예제사회의 중요한 특징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것은 이집트와 근동지방, 스키타이 등에서 순장의 행위가 밝혀졌고³⁾, 중국의 경우 비록 명청대에 이르기까지 순장의 흔적이 나타나지만 신석기시대에 발생하여 은상시대에 발전하며, 서주와 동주의 시대에 쇠퇴하고 진의 통일 이후에는 잔재만 남기고 있다고 할 수 있어⁴⁾ 고대국가의 초기에 유행했다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엄격한 계급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믿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순장은 그 실시여부가 해당사회의 성격을 구명하는 데에 유효한 자료임이 판단되어 고조선에서부터 삼국시대의 순장양상에 대한 검토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⁵⁾. 그러나 실제 순장의 시행과정이나 순장이 시행된 묘주의 신분, 순장자의 신분과 주인공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가 있었지만 만족할만한 연구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그것은 비록 고문헌에 순장에 대한 기사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영세하여 순장이 시행되었다는 것 이외에는 더 진전된 모습을 찾아낼 수가 없고, 고고학자료에서 순장의 증거가 포착되었으나 확

1) 黃展岳, 箸·佐藤三千夫外 譯, 2000, 『中國古代の殉葬習俗』(東京:第一書房)3-15

2) 권오영, 1991, 「고대 영남지방의 순장」 『한국고대사논총』4,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5-59

3) 권오영, 1991, 「앞글」 註 2)

4) 黃展岳, 箸·佐藤三千夫外 譯, 2000, 『앞책』, 287-311

실한 인골자료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추론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다 명확한 순장의 양상이 찾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순장으로 처리되었던 대부분의 고분에서의 순장을 부정하는 견해⁶⁾도 발표되었고 몇 기를 제외한 모든 고분은 순장이 아니라는 의견⁷⁾도 제시되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필자가 조사한 경산 임당지역고분군에서는 다수의 무덤에서 무덤의 주인공과 순장자⁸⁾를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인골자료가 검출되어 순장의 양상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간 발표된 임당의 자료를 근간으로 하며 지금까지 조사된 신라권의 고총들⁹⁾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고총단계 신라권의 보편적인 양상으로 파악하고 신라의 순장 실상에 보다 근접해 보고자 한다.

II. 신라의 순장고총

1. 순장의 시행시기

영남지방에서 순장이 시작된 것은 지금까지의 자료로 보아 3세기말 또는 4세기초의 도질토기의 발생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¹⁰⁾. 이를 잘 알려주는 것이 김해 대성동고분군의 순장양상이다. 김해 대성동고분군의 1, 3, 7, 8, 11, 13, 23, 24, 39호 등에서 순장의 흔적이 확인

5) 우리나라의 순장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강인구, 2000, 「三國時代 殉葬墓의 再檢討」 『古墳研究』 (學研文化社) 527-548

권오영, 1991, 「앞글」 註 2)

김기흥, 1993, 「한국 殉葬制의 역사적 성격」 『建大史學』8 (建國大學校史學會) 1-23

김세기, 1997, 「加耶의 殉葬과 王權」 『加耶諸國의 王權』 (仁濟大加耶文化研究所 編, 신서원) 97-122

김재현, 1997, 「韓國의 殉葬研究에 대한 檢討」 『文物研究』創刊號 (東亞細亞文物研究學術財團) 105-123

김정배, 1969, 「中·日을 比해본 韓國의 殉葬」 『白山學報』6 (白山學會) 1-20

김중철, 1984, 「古墳에 나타나는 三國時代 殉葬樣相」 『尹武炳博士回甲紀念論叢』 (刊行委員會), 263-271

송기호, 1984, 「발해의 「多人葬」에 대한 연구」 『韓國史論』11, (서울대 國史學科) 3-94

조인성, 1980, 「慕本人 杜魯 - 高句麗의 殉葬과 守墓制에 관한 一檢討 -」 『歷史學報』87 (歷史學會) 171-182

주용립, 1988, 「한국고대의 순장연구」 『손보기박사정년기념한국사학논총』 (간행위원회) 67-86

6) 김재현, 1997, 「앞글」 註 5)

7) 강인구, 2000, 「앞글」 註 5)

8) 피순장자라고 해야 마땅하나 김세기(1997, 「앞글」 註 5)의 견해와 같이 순장자라 불러도 이미 순장된 무덤의 주인공과는 구분이 되고 순장당한 사람을 뜻하는 의미에서 순장자라고 쓴다.

9) 여기서 신라 고분이란 신라식 위세품, 신라토기 등이 출토된 고분을 말한다. 즉 5, 6세기를 기준으로 할 때 낙동강 서안의 가야산 이남을 제외한 전영남지역의 고분을 지칭한다.

10) 慶星大學校博物館, 2000, 『金海大成洞古墳群』 I

되었는데, 이 가운데 13호는 4세기의 초반으로 편년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신경철은 도질토기의 출현과 거의 동시에 낙동강하류역에 순장이 출현하여 곧 영남의 전역으로 파급된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¹¹⁾.

범위를 좁혀 신라의 경우도 거의 유사한 시기에 순장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소위 경주식, 또는 신라식이라 부르는 목곽묘 유형의 출현과 함께 순장의 흔적이 찾아지는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유명한 목곽묘는 경주 정래동의 2곽과 3곽¹²⁾, 그리고 경산 조영1B-60호묘¹³⁾를 들 수 있다. 이 묘들은 세장한 장방형을 주된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발굴성과로 판단하면 동혈묘곽의 동곽구분 주부곽식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부곽식으로 본다면 부곽의 일정부분이 많이 비어 있는 것을 인지할 수 있으며 주부곽식이 아닌 단곽식이라 하더라도 피장자의 발치에 유물이 배치되고도 남는 공간이 크게 되어 순장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 같은 묘형으로 이에 후속하는 다음의 경산 조영1A-19묘¹⁴⁾에서 확실한 순장의 흔적이 확인되므로 이 묘형의 출현 시기에 신라권에서 순장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신라에서 확실한 순장의 모습은 4세기 전반에서 확인된다. 그것이 경산 조영1A-19호이다. 이 묘는 전기한 신라식이라 부르는 동혈묘곽의 주부곽식으로 부곽은 파괴되어 거기에 순장이 시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주곽의 주인공 발치에는 2인의 순장자 인골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후 고층이 발생하고 난 후에는 순장이 극히 성행한다. 지금까지 확인된 곳으로는 부산지역, 양산지역, 창녕지역, 경주지역, 경산지역, 대구지역, 성주지역, 의성지역, 영덕지역 등으로 신라권 전체에서 순장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고층단계의 신라권에서는 순장이 보편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순장의 소멸은 6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 순장에 대한 신라의 유일한 기록인 <삼국사기> 신라본기 지증왕3년(502년)조의 순장금지기록이 있으나 순장금지령이 당시 신라의 왕경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 곳곳에까지 미쳤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흥왕대의 울령의 공포, 지방관을 파견하는 지방통치의 실행 등의 제도개혁에 즈음하여서는 순장이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¹⁵⁾.

11) 신경철, 2000, 「V. 調査所見」 『金海大成洞古墳群』I (慶星大學校博物館) 171-194

12) 최종규, 1983, 「慶州九政洞一帶 發掘調査」 『博物館新聞』139

13) 영남대학교박물관, 1998, 『慶山 林堂地域古墳群』III

14) 영남대학교박물관, 1991, 『慶山 林堂地域古墳群』I

15) 김기홍, 1993, 「앞글」 註 5)

순장의 소멸에 대한 고고학적인 자료로는 금관이 출토된 금령총, 그리고 이와 비슷한 연대로 믿어지는 식리총¹⁶⁾ 등에서 순장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것에서 경주의 경우 이 무덤이면 순장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임당지역의 경우 조영동고분군의 가장 늦은 시기의 대형분이라 할 수 있는 조영EⅡ-4호와 그 다음에 연결되는 최초의 횡혈식석실인 조영1B-6호묘¹⁷⁾가 單葬이면서도 순장의 흔적이 찾아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6세기 전반에는 순장이 소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영주 순흥 읍내리벽화고분¹⁸⁾에서 순장의 흔적이 확인되어 이후에도 순장이 시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고분의 경우 횡혈식석실분으로 언제든지 추가장을 실시할 수 있어 비록 순장의 개념으로 여러 사람이 매장되었으나 제의의 개념으로 추가장 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따라서 순장이 6세기 전반 이후에도 시행되었을 가능성은 열어나 여기에서는 일단 6세기 전반에 신라권에서 순장이 소멸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2 순장묘의 검토

앞에서와 같이 신라의 순장시기를 규정하고 지금까지 확인되는 신라 고분에서 순장 사례를 지역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산지역의 경우 복천동 10·11호¹⁹⁾, 21·22호²⁰⁾, 53호²¹⁾, 학소대 1구2·3호²²⁾ 등에서 순장의 흔적이 찾아졌다. 이 무덤들은 모두 주부곽식으로 주곽의 피장자 발치에 1인~3인, 부곽에 1인 이상의 순장자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피장자의 착장유물은 환두대도와 금제이식이 세트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피장자는 모두 남성으로 추정할 수 있다. 순장자는 복천동 10·11호의 경우 보고서에 의하면 남성과 여성이 있어 성적 구분이 없이 순장이 시행되었음을 알려준다.

양산지역의 경우 이미 일제강점기에 발굴조사된 부부총²³⁾에서 순장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16) 梅原末治, 1931, 『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査報告-大正十三年朝鮮古蹟調査報告』(朝鮮總督府)

17) 영남대학교박물관, 1998, 『앞책』 註 13)

18) 대구대학교박물관, 1995, 『順興邑內里壁畫古墳』

19) 부산대학교박물관, 1983, 『東萊福泉洞古墳群』 I

20) 부산대학교박물관, 1993, 『東萊福泉洞古墳群』 II

21) 부산직할시립박물관, 1992, 『東萊福泉洞53號墳』

22) 부산대학교박물관, 2001, 『東萊 福泉洞 鶴巢臺古墳』

23) 동아대학교박물관, 1991, 『梁山金鳥塚·夫婦塚』

이 고분이 황구식석실이기 때문에 순장에 대한 부정이 제기되어 있지만 부부를 나란하게 시상 위에 안치하고 이 부부의 발치 시상 아래에 나란하게 3인을 주피장자의 머리방향과는 교차되게 안치하였음은 우선 사체의 존중도에서 차등성이 인정되고, 보통 황구식이나 황혈식의 추가장한 피장자는 먼저의 피장자 인골을 정리하고 안치하거나 시상을 확대해서 시신을 안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에 위배되고 있는 점, 이 고분이 축조되었다고 믿어지는 5세기말 또는 6세기 초에 부부를 제외한 다른 사람을 하나의 무덤에 추가장한 흔적이 아직 영남지방에서 발견되지 않는 점등으로 보아 순장으로 볼 근거가 된다. 여기에 순장된 사람들도 보고서에 의하면 남성과 여성이 모두 있어 순장에 성적 구분이 없다.

창녕지역의 경우 교동 1, 2, 3호²⁴⁾에서 순장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워낙 도굴이 심하여 순장양상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착장유물의 배치상태로 보아 주피장자의 발치에 1인 또는 2인의 순장자를 주피장자와 머리방향을 같게 하여 배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가운데 2호의 경우 출토되는 유물의 조합상이나 묘곽의 크기로 볼 때, 다른 묘의 별괄적인 성격의 부곽으로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도 1인의 순장자가 확인됨은 교동고분군의 묘제상의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3호의 경우 묘도에서 1인의 순장흔적이 확인되는데, 이점 또한 하나의 특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주지역의 경우 황남동109호3·4곽²⁵⁾, 황남대총남분²⁶⁾, 북분²⁷⁾, 천마총²⁸⁾, 금관총²⁹⁾ 등에서 순장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황남동109호의 경우 이희준³⁰⁾에 의하여, 황남대총 남분과 북분, 천마총은 이은석³¹⁾에 의하여 자세하게 검토되어 순장양상이 확인되었다. 금관총의 경우 보고서에 제시된 도면에 의하면 피장자의 발치 양측에서 각각 은제천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이곳에 순장자가 매장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이 고분의 경우 발굴되어 보고된 도면으로 볼 때, 내곽부만 확인되고 외곽이라든지 석단의 상황들을 알 수 없어 추정하기가 힘들다. 조사되어 보고되지 않은 이러한 부분들에도 다수의 순장자가 배치되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 경주지역에서 순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월성로가-13호묘³²⁾의 경우는 순장묘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이 무덤에 매장된 5인이 모두 미성년이라는 점과 그들

24) 동아대학교박물관, 1992, 『昌寧校洞古墳群』

25) 齊藤忠, 1937, 『皇南里第109號墳皇吾里第14號墳發掘調査報告-昭和九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26) 문화재관리국문화재연구소, 1995, 『皇南大塚(南墳)』

27) 문화재관리국문화재연구소, 1985, 『皇南大塚(北墳)』

28) 문화재관리국문화재연구소, 1974, 『天馬塚』

29) 濱田耕作·梅原末治, 1924, 『金冠塚と其遺寶-古蹟調査特別報告3-大正十一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30) 이희준, 1987, 「慶州 皇南洞 109號墳의 構造再檢討」 『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I -考古學篇』, (刊行委員會) 597-616

31) 이은석, 1999, 「慶州 皇南大塚 構造에 대한 一考察」 『考古歷史學志』第15輯 (東亞大學校博物館) 87-142

32) 권오영, 1991, 「앞글」 註 2)

의 착장유물에서의 차등성이 크게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며, 사체의 배치상태에서도 존중도의 차이가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묘의 경우 권오영이 제시한 바와 같이 순장이 아닌 전염병 등의 특이한 상황에서 동시의 죽음이 가정되고 이 때에 축조된 무덤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영덕지역에서는 괴시리 16호묘³³⁾에서 순장이 확인되었다.

이 무덤은 적석목곽묘를 주체로 하고 있는 봉토분으로 목곽의 양단벽에 설치된 석단의 위에 각각 1인을 순장한 것이다. 도굴이 워낙 심하여 내곽의 내부에도 순장이 시행되었는지 불분명하지만 동일한 계보의 영남지방 적석목곽묘들에서 내곽의 순장흔적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그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의성지역에서는 탐리 제 I 묘곽, III 묘곽³⁴⁾, 대리 3호 1·2곽과 3곽³⁵⁾에서 순장의 흔적 발견되었다. 이 가운데 대리 3호 1·2곽은 주부곽식이며 주곽이 적석목곽묘이다. 순장은 부곽인 2곽의 한쪽에 순장자를 안치하였다. 3곽은 변형적석목곽묘로 순장자를 주피장자의 발치에 같은 머리방향으로 배치한 것이다³⁶⁾. 나머지 탐리 I 곽과 III 곽은 주피장자의 발치에 머리방향을 반대로 하여 순장자를 배치한 것으로 순장자는 노년여성과 유년여성으로 밝혀진 바 있다.

성주지역은 성산동 38호, 39호, 57호, 58호, 59호의 부곽에서 순장의 흔적³⁷⁾이 확인되었고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2호분에서도 순장의 흔적이 확인되었다³⁸⁾. 성주지역에서는 주곽에서 순장자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고 부곽에 1인 이상을 순장한 것이 보편적이다. 한편 성주지역에서 순장의 흔적이 발견되는 고분들 가운데 부곽이 아닌 순장곽으로 표현된 것들이 몇 기 있는데³⁹⁾, 이들은 순장을 위한 별도의 곽을 만든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장례 중에 발생된 주피장자와 관련된 사람이 죽었을 때, 같은 묘역에 별곽을 배치하여 매장하는 일종의 매장묘적인 성격으로 동시성이 결여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여기서는 이들을 순장이라 보지 않는다.

대구지역에서는 다수의 고분군에서 순장의 흔적이 찾아진다. 그 가운데 가장 대형의 중심 고분군으로 볼 수 있는 내당동·비산동고분군⁴⁰⁾은 횡구식의 묘제나 수혈식의 묘제냐가 의문

33) 국립경주박물관, 1999, 『盈德 槐市里 16號墳』

34) 국립박물관, 1962, 『義城塔里古墳』(乙酉文化社)

35) 박정화, 1995, 「義城 大里3號墳 發掘調査概要」, 『제2회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조사연구발표회』(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73-82

36) 이 묘들에 대해서는 경북대학교박물관의 이재환 선생에게 순장양상에 대한 상황을 들었다. 이에 감사드린다.

37) 김세기, 1987, 「星州 星山洞古墳群 發掘調査概報」, 『嶺南考古學』3(嶺南考古學會) 183-213

38) 朝鮮總督府, 1922, 〈大正七年度 朝鮮古蹟調査報告〉, pp.14-22

39) 성주 성산동 38호, 59호 등의 순장곽으로 표현된 소형석곽이 이에 해당된다.

40) 野守建·小泉顯夫, 1931, 『慶尙北道達城郡達西面古墳調査報告-大正十二年度朝鮮古蹟調査報告』(朝鮮總督府)

시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지만 비산동37호분 제1곽과 2곽은 부부의 양장분이기 때문에 횡구식이라 하더라도 추가장이 시행되지 않은 單葬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크고 내당동50호분과 62호분은 수혈식석곽묘이므로 순장이 시행된 묘로 보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앞의 두기는 주피장자와 머리방향을 같게 하여 주피장자 옆에 순장자를 안치한 특성이 있고, 뒤의 두기는 부곽에 순장을 시행하였다. 이렇게 보고 이희준에 의해서 분석된 착장유물 정형⁴¹⁾을 참조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한다면 이 고분군에서 순장의 양상이 더 찾아질 것이다. 이외 죽곡리고분⁴²⁾, 구암동56호 본분⁴³⁾ 등과 근래에 조사된 달성 문산리의 대형분들에서도 주곽과 나란하게 설치된 부곽에서 반드시 1인 이상의 순장흔적이 확인되고 있다. 이들과는 다르게 화원 성산고분군⁴⁴⁾에서는 卜자형으로 배치된 주부곽식의 주곽에서 피장자의 발치 아래에 주피장자와 같은 두향을 가진 순장자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경산지역에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많은 대형분들이 조사된 임당지역고분군에서 대형분이라고 한다면 거의 모두에서 순장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임당지역의 고분들에서 순장은 묘제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데 가장 일찍이 축조된 목곽묘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조영1A-19호 묘가 주곽의 피장자 발치에 2인을 주피장자와 같은 두향으로 순장한 흔적이 확인되어 그 양상을 알려준다. 이 묘의 주피장자는 약년 또는 성년의 여성이며, 순장자 역시 모두 약년 또는 성년의 여성으로 확인되었다. 적석목곽묘인 조영CⅡ-2호⁴⁵⁾와 임당G 5, 6호⁴⁶⁾에서는 경주지역의 적석목곽묘에서와 같이 내곽에 순장을 시행할 경우 주피장자의 발치에 머리를 반대로 해서 순장자를 배치하고 내곽과 외곽 사이의 석단 위와 부곽에 순장자를 배치한 것이 확인된다. 이후 고총단계의 중심묘제인 암광목곽묘에는 주곽에 앞의 적석목곽묘 내곽과 같이 순장자를 배치하고 부곽에 순장자를 배치하며, 5세기 후반에 일시적으로 축조된 횡구식석실(임당 5A호와 조영EⅡ-1호)의 경우는 양산 부부총에서와 같이 주피장자의 발치 아래인 입구 쪽에 주피장자와 엇갈린 방향으로 순장자를 안치하였다. 주부곽식의 경우 주곽에 2인, 부곽에 2인 모두 4인 정도의 순장자를 배치하는 것이 보통이나 많은 경우 주곽에 6인, 부곽에 2인 모두 8인(조영CⅡ-2호)을 순장하였다. 또 하나 특징은 주피장자가 유년일 경우에도 순장을 시행한 것이

41) 이희준, 2000, 「大邱 達成古墳群의 着裝形 遺物 出土 定型」 『慶北大學校 考古人類學科 20周年紀念論叢』 (慶北大學校 考古人類學科) 15-37

42) 대구대학교박물관, 1994, 「죽곡리고분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자료」

43) 영남대학교박물관, 1978, 『鳩岩洞古墳發掘調查報告書』

44) 경북대학교박물관, 2000, 「대구 화원 성산 고분」 『경북대학교박물관 유적발굴40년』 101-105

45) 영남대학교박물관, 1999, 『慶山 林堂地域古墳群』 IV

46) 장용석, 1997, 「慶山 林堂 G-5·6號墳에 대하여」 『第40回 全國歷史學大會 發表要旨』 (同準備委員會)

확인된다. 이러한 것들로 볼 수 있는 것이 조영EⅢ-8호⁴⁷⁾, 조영EⅠ-2호⁴⁸⁾, 임당7C호⁴⁹⁾ 등이 그것으로 순장을 시행한 집단에 대한 암시를 해주고 있다.

이상의 신라권에서 확인되는 순장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 묘들의 순장과 관련된 제 특징을 정리하면 표와 같다. 이들을 살펴볼 때 적어도 고총단계에는 순장이 신라권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총이 많이 조사된 대구와 경산지역에서 지역의 고총이라 할만한 것에서는 대부분 순장의 흔적이 있어 이를 알려준다.

47) 영남대학교박물관, 1994, 『慶山 林堂地域古墳群』Ⅱ

48) 영남대학교박물관, 2000, 『慶山 林堂地域古墳群』Ⅴ

49) 정영화, 2000, 「慶山 林堂지역 고분군의 조사경과와 意義」 『임당의 고분과 생활유적』 (韓國上 古史學會 編, 학연문화사) 21-68

표. 신라 고종의 순장묘 일람

지역	순장묘	묘제	크기(cm)	순장인수	주피장자		순장자		기타주요유물	비고
					착유물	성·연령	착유물	성·연령		
부산	복천동 10·11호	수혈식석곽 (주·부)	주:480×150×150 부:600×350×200	주 39인 부 19인 이상	금제이식, 삼루환두대도, 소환두대도	남성?		1:남성 2:여성?	금동관 부장	
	복천동 21·22호	수혈식석곽 (주·부)	주:475×160×160 부:620×420×270	주 39인 부 19인 이상	소환두대도, 이식, 경식, 복각병도자	남성?	2:복각병도자 3:철도자			
	복천동 53호	수혈식석곽 (주·부)	주:460×133×120 부:416×300×108	주 1인? 부 19인 이상	국유부경식, 환두대도, 세환이식	남성?				
	학소대 172·3호	적석목곽? (주·부)	주:370×140×120 부:전존길이 440	주 19인 이상 부 19인 이상	환두대도, 이식	남성?	1:유리경식 2:철도자			
양산	부부총	황구식석실	545×225×1280	39인	남:금동관, 금제이식, 국유부경식, 은제과대, 도자, 은제지환 여:은관식, 금제수식, 국유부경식, 금제천, 은제천, 은제과대, 금동도자		1:도자 2:금동이식, 도자 3:국유부경식, 도자	여성 남?		
	과동 1호	황구식석곽	710×120×140	29인	은제관식, 은제과대, 대도	남성?	1:금제이식, 유리경식 2:은제이식			도관
	과동 2호	부곽?	390×95×100	19인	은제과대		은제이식 (금제환주패장자 깃과관?)			도관
경주	과동 3호	황구식석곽	720×130×220	곽내 29인	은제과대		국유부경식			
	황남109호3·4곽	적석목곽 (주·부)	주:440×225×100? 부:350×210×?	부 19인	금제이식, 대도, 관유	남성?	국유부경식			
	황남대총 남분	적석목곽 (주·부)	주:650×410×100? 부:520×380×130	주 8~9인	남:금제수식, 금동관, 금제경식, 국유부경식, 금제과대, 금정삼부대도 여:금관, 금제수식, 국유부경식, 금제과대, 금제천, 금제지환, 봉문대도		금제수식, 금제지환, 1:여성 은제과대, 경식 중 1,2종 (16세)			
	황남대총 북분	적석목곽	680×460×400	109인?	여:금관, 금제수식, 금제경식, 국유부경용식, 금제과대, 금제천, 금제지환		상동			
금관총	적석목곽	660×420×210	59인 정도	여:금관, 금제수식, 국유부경식, 금제과대, 금제천, 금제지환, 금동식리		금제수식, 금제이식, 경식, 대도 중 1,2종				
	적석목곽	250×100(내곽크기)	29인 이상			천				

영덕	괴시리 16호	적석목곽	620×515×200	2인 이상	경식, 금제중구(수식)	여성?	1:철동이식 2:부시비늘?		
	탈리 제 1 목곽	변형적석목곽	350×170×180	1인	금동관, 금제수식, 금동과대, 유리경식, 도자	여성?	은제수식	노년여성	
의성	탈리제III 목곽	변형적석목곽	350×150×150	1인	금동관, 옥목부경식, 금제이식, 금동과대, 환두대도	남성?	도자	유년여성	
	대리 3호 3곽 (주1, 부2)	변형적석목곽 주·부	주:370×130×70? 부:510×180×30?	주 1인 부 1인?	금동관식, 금제이식, 은제과대, 삼엽대도	남성?	철도자, 철도?		
	대리 3호 3곽	변형적석목곽	330×160×70?	1인	태환수식, 유리경식	여성?	태환수식		도굴
	성산동 38호	수혈식석곽 (주·부)	주:360×170×195 부:300×140×100	부 1인?	금동이식	남성?			도굴
성주	성산동 39호	수혈식석곽 (주·부)	주:375×145×195 부:282×175×195	부 1인?	금제이식	남성?			도굴
	성산동 57호	수혈식석곽 (주·부)	주:374×159×현120 부:199×114×현18	부 1인?	금제이식, 철검, 은제과대	남성?			
	성산동 58호	수혈식석곽 (주·부)	주:332×125×175 부:178×100×70	부 1인?	금제수식, 은제천, 은제지환	여성?			
	성산동 59호	수혈식석곽 (주·부)	주:378×128×175 부:240×125×100	부 1인?					도굴
	죽곡리고분	수혈식석곽 (주·부)	주:780×150×160 부:880×80×130	주 1인? 부 1인?	금동이식, 삼환두도	남성?	금동지환, 철도자		
	구암동 56호 본분	수혈식석곽 (주·부)	주:550×93×145 부:640×75×115	주 1인? 부 1인?	금동과대, 대도	남성?			
대구	문산리 M2호분	수혈식석곽 (주·부)	?	?	?				
	확원 성산고분	수혈식석곽 (주·부)		주 1인	은제관식, 금제이식, 금동과대, 대도	남성?	도자		
	비산37호본제1곽	황구식석곽?	427×127×156	2인	태환수식, 경식, 금동관	여성?	1:금동환, 소도 2:유리경식		
	비산37호본제2곽	황구식석곽?	380×120×170	1인?	은제관식, 금제이식, 삼루환두 대도, 금동식리	남성?	금동이식		
	내당50호분 (주:2, 부:1)	수혈식석곽		부:1인	태환수식, 대도	남성?	도자		

경산	대 구	내당 62호 (부과)	수월시석과		1인?				
	조영 1B-60	목과	원 390×75	부:1인?	활동대도	남성?			
	조영 1A-19	목과	원 530×125(주)	주:2인	관수식, 유리소옥천, 경식	약년, 성년 여성		12:약년 성년 34:정년남 여성	부과폐
	조영 C1-1호	인광목과 (주·부)	주:378×126×175 부:368×351×136	주:2인 부:2인	은제관식, 국유부경식, 금제이식 은제과대, 삼엽활동대도	남성	1:금동이식, 도자 2:금동이식 3:철도자		
	조영 C1-2호	인광목과 (주·부)	주:388×145×187 부:430×385×160	주:2인 부:1인	금제수식, 국유부경식	여성	3:금동이식		도록
	조영 C1-1호	적석목과 (주·부)	주:495×240×195 부:425×385×145	주:2인 부:2인	금동관, 수식, 국유부경식 도자	남성	1,2,3:금동편 4:도자		
	조영 C1-2호	적석목과 (주·부)	주:605×390×145 부:375×328×128	주:6인 부:2인	금제이식, 국유부경식, 활동대도	남성	1:금동편 5:금동이식 8:도자		
	조영 E1-1호	인광목과 (주·부)	주:430×220×195 부:375×130×100	주:2인 부:1인	금동관식, 금제이식, 국유부경식, 활동대도, 은제과대, 은제지활	남성	1,2:금동이식 3:도자		
	조영 E1-2호	인광목과 (주·부)	주:370×130×100 부:245×138×70	주:1인 (두콜만)	금제이식, 금동과대, 삼엽활동대도	유년남성	금제이식		주도록
	조영 E1-1호	황구식석실	430×315×?	2인	은제관식, 금제이식, 은제과대 활동대도	남성	?		피피 도록
	조영 E1-2호	인광목과 (주·부)	주:440×130×215 부:420×370×170	주:1인 부:1인?	금동관, 금제수식, 금동과대, 국유부경식, 은제지활 금동식리	여성	1:은제수식	약년여성	부도록
	조영 E1-3호	인광목과 (주·부)	주:395×120×205 부:310×300×130	주:1? 부:2인	은제과대, 유리경식	여성?	?		도록
	조영 E1-2호	수월시석과 (주·부)	주:390×170×200 부:430×380×175	주:2인 부:2인	금동과편, 대도	남성			주도록

경산	조영 EIII-3호	암관묘곽 (주·부)	주:390×192×186 부:392×387×147	주:2인 부:1인	금동관, 수식, 곡옥부경식	여성			주도권
	조영 EIII-4호	암관묘곽 (주·부)	주:420×160×159 부:440×320×148	주:? 부:2인		약년? 1:대도	성인 남성		주도권
	주영 EIII-8호	암관묘곽 (주·부)	주:280×145×170 부:220×7×85	주:1인 부:?	금동관, 금제수식, 곡옥부경식, 은제지함	유년 여성?	성인 여성		부패괴
	임단 2남호	암관묘곽 (주·부)	주:430×120×210 부:400×380×150	주:1인? 부:?	금동이식?, 유리경식	남성	금동이식?		주도권 부패괴
	임단 2북호	암관묘곽 (주·부)	주:440×130×210 부:400×380×150	주:1인? 부:1인	금동관, 백화수피관모, 곡옥부경식, 은제과대	여성	2:금동이식		주도권

Ⅲ. 순장자의 배치형태

순장의 형식이라 함은 어떠한 방식으로 순장을 실시했느냐? 즉 산사람을 그대로 매장했느냐? 죽여서 매장했느냐? 죽여서 매장했다면 음독을 시켰느냐? 어떤 다른 방식을 사용하여 죽였느냐? 등을 해결하여 이를 가지고 따져야할 것이나 지금의 입장에서 이를 확인한다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순장자가 무덤의 내부에 어떻게 배치되었는가를 따져 순장자의 배치형태로 순장형식의 일단이나마 찾아보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신라의 고총으로서 순장이 시행된 묘는 모두 50여기에 달한다. 다만 조금이라도 인골이 남아 있거나 착장유물로 판단하여 순장의 형태를 분간해 볼 수 있는 것은 몇 기에 불과하다. 그러나 착장유물의 출토 위치, 얼마 남아 있지 않지만 남아 있는 인골편 등을 참조하여 순장자의 배치형태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순장자의 배치형태는 주인공과의 차별적 대우를 지적해 주는 적극적인 증거의 하나이면서 여러 명을 순장할 경우 그 친소에 따라 구분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묘제에 따라 순장자의 배치형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묘제에 따라 사용공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곳에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신라의 고분으로 명명할 수 있는 순장묘의 묘제로는 목곽묘, 적석목곽묘, 변형적 석목곽묘, 수혈식석곽묘, 암광목곽묘, 횡구식석곽묘, 횡구식석실묘 등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묘제별로 순장자의 배치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며, 위의 묘제들 가운데는 단곽식과 주부곽식도 있어 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대략 기본적인 형태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그림 참조)

첫째, 복천동형이다. 주부곽식의 주곽의 주피장자 발치 아래에 주피장자와 동일한 두향으로 순장자를 배열하고 부곽에도 순장자를 배치한다. 그리고 횡구식으로서 부곽을 갖지 않은 창녕 교동의 1호분과 3호분 등도 이 형식에 포함 될 수 있다. 조영1A-19호, 복천동 10·11호, 복천동 21·22호, 학소대 1구3호, 복천동 53호, 화원 성산고분, 대리3곽이 이 형식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복천동 11호의 경우 2인은 주피장자와 동일한 두향으로 배치되었으나 중앙의 1인은 주피장자와 반대의 두향으로 안치되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이 경우 혹시 목곽의 위에 순장자를 안치했을 수도 있으므로, 대략적인 상황으로 보아 이 형식에 소속시킨다.

그림. 순장자의 배치형태

<p>복천동형</p>	
<p>경주형</p>	
<p>임당형</p>	
<p>달성형</p>	
<p>양산형</p>	

둘째, 경주형이다. 적석목곽묘형이라 부를 수 있는 것으로 묘제의 구조상 사방에 석단이 마련되어 사방의 석단에도 순장자를 배치하고 내곽의 순장자는 주피장자의 발치에 주피장자와는 반대의 두향으로 순장자를 배치하는 것이다. 주부곽식의 경우 부곽에도 순장자를 배치하는데 부곽순장자의 배치는 일률적이지 않다. 황남대총 남분, 북분, 천마총, (황남동109호3·4곽?), 괴시리16호, 조영CⅡ-2호가 이 형식이다.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았지만 임당G-5, 6호도 이 형식으로 추정된다.

셋째, 임당형이다. 적석목곽묘의 내곽과 같이 주피장자 발치에 두향을 주피장자와 반대로 순장자를 배치하는 형식이다. 주부곽식의 경우 부곽에도 순장자를 배치하는데 그 형태는 역시 일률적이지 않다. 경산 임당지역 암광목곽묘 대부분, 탑리 I, II묘곽이 이 형식이다.

넷째, 달성형이다. 나란한 주부곽식의 경우 주곽의 피장자와 같은 방향의 두향으로 부곽에 순장자를 배치하고 단곽식의 경우 주피장자의 옆에 주피장자와 동향의 두향으로 순장자를 배치한다. 대리 1·2곽, 구암동56호본분, 달성죽곡리고분, 내당동·비산동고분군의 순장묘들이 이 형식이다. 근래에 발굴된 달성 문산리고분군의 대형묘들과 성주 성산동고분군의 주부곽식 묘들도 이 형식에 포함될 것이다.

다섯째, 양산형이다. 황구식석실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황구식석실형이라 할 수 있다. 주피장자의 발치에 횡으로 순장자를 배치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함안지역의 경우 황구식이 아닌 수혈식이면서도 이러한 형태가 유행한 점으로 미루어 가야권에서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양산부부총, 임당5A호, 조영EⅡ-1호가 이 형식에 속한다.

이상의 다섯 가지 형태들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는 복천동형을 들 수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신라권에서 가장 확실한 순장묘로 인지되는 경산 조영1A-19호묘가 이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출현한 형태로는 묘제의 변천상 가장 늦게 영남지방에 등장하는 황구식이란 점에서도 직시할 수 있듯이 양산형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경주형, 임당형, 달성형이 그 중간에 발생하여 유행한 형식이 된다. 이 가운데 달성형은 자료의 부족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임당형의 경우 경주형의 내곽배치 모습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임당지역의 고분군의 비교적 이른 시기 고총순장묘인 적석목곽묘들(임당G-5,6호, 조영CⅡ-2호)이 경주형을 취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잘 알려준다. 그렇다면 발생서열을 복천동형 → 경주형 → 임당형 → 양산형으로 규정할 수 있고 달성형의 경우 고총의 확산과정 등의 정황으로 미루어 임당형과 같은 시기에 복천동형에서 변화·발전된 형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것이 시간적으로 그렇게 유의미한 것이라 할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변천상이 성립된다 함은 앞으로 고구할 가치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위의 형태들에서 지역성이 관찰된다. 특히 고총단계에 해당하는 순장묘들에서는 이 지역성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즉 북천동형은 비록 보다 이른 시기에 발생하였지만 고총단계에는 낙동강의 하류인 부산과 창녕지역에서, 달성형은 대구와 그 인근에서, 임당형은 신라의 진출 과정상 중요했던 주변인 경산과 의성에서, 경주형은 경주와 적석목곽의 대형분이 분포하는 주변에서 유행한 것이 관찰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역성이 묘제의 제한에서 오는 것일 가능성도 있으나 또 다른 의미로는 오히려 묘제와 함께 지역집단들의 정체성을 알려준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어떤 다른 의미를 내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또한 앞으로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V. 주피장자와 순장자의 신분

1. 주피장자의 신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신라권 고총의 최고위계 대형묘에서 순장이 보편적인 현상⁵⁰⁾이었음이 다시 확인된다. 그렇다면 신라 순장묘의 주피장자는 중앙과 지방의 최고위계 대형묘 주피장자와 바로 연결될 수 있다.

중앙의 경우 순장묘의 주피장자는 일단 왕족이 상정될 수 있다. 그것은 <삼국사기> 지증왕 3년조의 기록⁵¹⁾에서 왕의 사망시 순장이 행해졌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왕릉으로 인식되고 있는 황남대총의 남분과 왕비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황남대총 북분에서 적극적인 해석을 하면 10인 내외의 순장흔적이 찾아지므로 이를 고고학적으로 증명한다. 이것은 왕과 왕비에게 대등한 순장이 행해지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적극적인 증거가 된다. 이외 경주지역에서 순장의 흔적이 찾아지는 것이 천마총, 금관총, 황남동109호3·4곽인데 천마총은 남성, 금관총은 여성으로 출토되는 유물로 보아 필자의 특급계층에 해당되어 왕족이 확실하고 황남동109호3·4곽은 A급계층의 고분⁵²⁾으로 당시로서는 왕족을 제외한 최고위계인 남성

50) 김종철, 1984, 「앞글」 註 5)

51)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四 智證麻立干條

52) 拙著, 1998, 『新羅의 高塚과 地域集團』 (춘추각) 317-318 參照

귀족의 무덤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에 신라 최고위계의 귀족과 왕족묘의 경우 남녀를 불문하고 순장이 보편적으로 행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이외의 묘들에서 순장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음은 문제가 되나 발굴시의 정밀한 판단 등이 부족하여 발생한 것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발굴기록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면 순장의 흔적이 많이 찾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의 경우 고층단계의 지방통치체제가 간접지배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순장묘의 주피장자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간접지배란 어느 정도의 자치성이 인정되고 신라중앙에 의해 통제 받는 형태라고 할 때, 자치성이 인정되는 정치집단의 최고 위계자 집단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 집단은 비교적 많이 발굴조사된 경산 임당유적의 대형묘들을 통해서 볼 때 누세대가 계승하며 존재하고 있었음이 명확한 점에서 이전 신라에 복속되기 전 독립소국의 왕급과 그 가족집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⁵³⁾.

결국 고층단계의 순장묘의 주피장자는 신라의 왕과 왕족, 최고위계귀족, 지방소국의 최고위계자 가족집단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들은 필자의 A급계층⁵⁴⁾ 이상에 해당되는 분묘들이다. 그렇다면 신라 순장묘의 주피장자는 역사기록에 干으로 표현되던 계층의 가족집단이었음이 확인된다. 임당지역의 경우 아직 성장하지 아니한 미성년의 무덤에서 순장의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과 주피장자들의 착장유물을 환두대도와 이식(남성), 태환과 금동관(여성) 등의 유물 조합상 등으로 판단할 때, 남성과 여성 모두 해당되고 있는 것이 관찰되는 점으로 미루어 지방의 간과 그의 가족이 순장묘의 주피장자임이 드러나는 것이다.

결국 순장묘의 주피장자는 역사기록에 干으로 표현되는 집단⁵⁵⁾과 그 가족이라는 것이 성립된다. 다만 그들의 지위에 따라 순장자 수에 차이가 있는 것이 관찰되고 있다. 마립간으로 표현되는 왕이나 그 부인인 왕비의 능으로 추정되는 황남대총의 남분과 북분에서는 10인 내외의 순장흔적이, 왕족으로 보이는 천마총에서는 5인 내외의 순장흔적이, 신라귀족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황남동 109호 3·4곽에서는 그 보다 적은 수의 순장흔적이 확인되고 있으며, 지방의 경우도 3인 이상의 순장흔적이 나타나는 곳은 부산 복천동, 양산 북정리, 경산 임당지역고분

53) 拙稿, 1998, 「林堂遺蹟 干의 家系에 對한 試論」 『新羅文化』 第15輯 (東國大學校新羅文化研究所) 55-80

54) 이하 분묘의 계층은 拙著, 1998, 『앞책』 註 52)의 분류를 따른다.

55) 신라 상대의 干이란 진한 지역에서 독자성을 띤 정치적 수장에 대한 지칭으로, 그 용례를 정리하면 독자적 왕자에 대한 지칭, 신라의 국왕에 신속한 고급관료층의 위호, 신분화한 지배층에 대한 범칭으로 정리된다.(徐毅植, 1994, 『新羅上代 '干' 層의 形成·分化와 重位制』 (서울대학교 博士學位論文) 10-36)

군 정도이고 나머지는 1~2인의 순장흔적만 찾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위세품으로 볼 수 있는 묘주의 착장유물과 부합되는 면이 많다. 즉 지금까지 신라의 지방소국으로서 가장 화려한 착장유물을 소지한 비교적 이른 시기의 고분군인 부산 북천동고분군을 제외하고 살펴 보면 양산 북정리고분군, 창녕 교동고분군, 경산 입당지역고분군, 대구 비산동·내당동고분군 정도이다. 이 가운데 창녕 교동과 대구 비산동·내당동 고분군의 경우 그리 많은 순장자의 흔적이 찾아지지는 않는데 이것은 횡구식 또는 단곽식의 수혈식석곽이라는 묘제의 제한성에서 순장자의 수가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특히 창녕 교동고분군의 경우 가장 대형묘의 발굴현황이 아니라 고분군 전체에서 볼 때 좀 비중이 떨어지는 규모의 무덤 현상이므로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사실은 지방 순장묘의 주피장자 중 보다 순장자가 많은 곳의 경우 신라에서 중시된 지역의 고총고분주라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신라 지방의干이 위계화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위계화의 정도는 대구와 그 주변의 순장묘들에서 확인된다. 즉 당시 소국으로 불릴만한 정치체를 가진 경산 입당지역고분군과 대구 내당동·비산동고분군의 순장자 수와 별읍이라 부를 수 있는 정치체로 추정되는 화원 성산고분, 죽곡리고분, 구암동고분군의 순장자 수에서는 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지방의 소국으로 불릴 수 있는 정치체의 지배자는 복수의 순장이 시행되나 별읍 정도의 정치체 지배자는 1인 정도의 순장이 시행되었다는 것이 되고 소국의 지배자라도 당시의 상황에 따라 좀 더 비중 있는 소국의 지배자에게는 보다 많은 수의 순장이 시행되었다는 것이 된다. 그리고 경산 입당지역 경우를 살펴볼 때 연소자가 주인공인 무덤에서는 1인 또는 2인 정도의 순장이 시행되나 성인인 干급과 그 배우자의 무덤에는 주곽에 2인, 부곽에 2인 정도가 보통 순장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성인과 유소년이 순장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순장자의 신분

순장자의 신분은 그동안 어느 정도 검토가 되었다⁵⁶⁾. 결과는 노예(노비)와 주피장자의 근시적 존재인 시녀, 시종, 비천한 출신의 첩, 호위무사 등으로 파악되었다.

56) 권오영, 1991, 「앞글」 註 2)와 김기홍, 1993, 「앞글」 註 5)

이는 대체적으로 수궁이 가는 것이나 노예의 경우는 의심이 간다. 여기서는 순장자가 착장한 유물을 중심으로 하고 순장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 등의 분석을 통해서 당시 순장자의 계층을 찾아 보다 실상에 접근해 보도록 하자.

경주지역의 경우 귀족이 묘주로 추정되는 황남동109호3·4곽을 제외하면 묘주가 모두 왕족으로 추정되며, 이들의 순장자들 가운데는 금제수식, 금제지환, 은제과대, 유리경식 등의 착장유물 가운데 1, 2종을 착장하고 있음이 확인된다⁵⁷⁾. 이와 같은 착장유물의 종류는 필자의 계층분류상 B급 이상이 되며 A급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특급을 경주의 왕족, A급을 경주의 귀족과 지방의 최고지배층인 간층, B급을 지방읍락의 지배자로 볼 때, 경주의 왕족 묘에 순장된 사람들에는 계층상 지방 읍락의 지배자 이상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존재함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경주 왕족 무덤의 순장자는 결코 비천한 천인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근시적 존재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조선시대의 왕과 왕비의 근시적 존재인 환관과 상궁의 신분이 그렇게 낮지 않았음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은 왕의 교체시 전왕의 근시적 존재는 순장되고 새로운 왕의 등극과 함께는 새로운 근시적 존재가 왕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다음 경주의 귀족 무덤에서의 순장은 자료가 빈약하여 그 실상을 파악하기가 힘들다. 단지 1기 확인된 황남동 109호3·4곽의 경우 순장자는 다음에 설명하는 지방의 간층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유사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 있다.

지방의 간층 무덤 순장자들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금동이식과 곡옥부경식 가운데 한가지의 장신구에 도자가 더해지는 것이 가장 화려한 착장유물이다. 이들은 묘주를 A급으로 볼 때 C급계층 정도에 해당되므로 C급 이하의 계층들이 순장자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C급의 계층은 당시 자연촌의 유력자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결국 순장자는 자연촌 유력자의 수준이나 그 보다 낮은 신분의 소유자가 된다. 이러한 신분의 소유자들을 노예로 보기에겐 어색한 점이 많다. 노동을 목적으로 사용될 노예를 순장한다고 한다면 노예에게 장신구를 착용시킬 필요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임당지역고분군의 경우 주곽에 순장된 사람들에 비해 부곽에 순장된 사람들의 착장유물이 빈약한 점, 주곽 순장자의 경우 제대로 사체처리를 함에 비해 부곽 순장자의 경우 흐트러진 자세로 출토되는 등 사체처리의 혼

57) 李恩碩, 1999, 「앞글」註 31)

적이 별로 관찰되지 않는 점⁵⁸⁾등에서 차등성이 있으므로 달리 보아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부곽의 순장자에게도 금동이식이 착용되는 등의 흔적이 발견되므로 꼭 노예로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경주의 왕족에게 순장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간층의 근시적 존재로 인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근시적 존재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 비록 아직 명확하게 분석되지는 않았으나 순장자 인골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 있는 임당지역고분군의 몇 고분들에서는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들이 찾아진다.

먼저 남자의 무덤인 조영CI호의 주곽과 여자의 무덤인 조영EII-2호 주곽의 순장자는 모두 아직 성장하지 않은 약년 이하의 인골로 확인되었다⁵⁹⁾. 이를 기준으로 하고 임당지역 고분들의 유물 배치상태와 순장자의 공간 등으로 볼 때, 주곽의 순장자들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년 이하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아무리 공간의 활용을 위하여 순장자를 거꾸로 묻는다고 하여도 주곽의 공간은 성인 순장자를 배치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주곽의 순장자는 대부분 시녀나 시동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부곽의 순장자는 금동이식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큰칼을 찬 경우도 나오고 농기구 등이 주변 가까이서 발견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조영CI호의 부곽에 순장된 사람들은 모두 장년의 남성으로 밝혀졌으며 유아나 소년이 부곽에 순장된 것으로 보이는 인골은 발견된 바 없다. 이러한 사실은 부곽에 순장된 사람들은 대부분 성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착용장신구 및 동반하여 출토되는 유물 등으로 보아 주인의 신변을 보호하는 호위무사,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 등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한편 임당지역의 순장자들 가운데는 특수한 경우가 몇몇 발견되고 있다. 조영EIII-8호의 경우 주인공은 유년인데, 순장자는 성년의 여성이라는 사실이 그것이고, 조영EI-2호 역시 주인공은 소년인데 순장자는 금제이식을 착용하고 있으며 머리만 잘려 들어가 있는 것이 그것이다. 앞의 자료는 주인공과 관련을 시킬 때, 유모 등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나 후자의 경우는 좀 복잡한 사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임당지역에서 순장자가 금제이식을 착용한 경우는 이 자료 밖에 없다. 이것은 특수한 경우에 머리만 잘린 성인이 주피장자와 함께 묻혔다는 것

58) 경산 조영EI-1호 부곽과 임당 2호 부곽의 순장자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嶺南大學校博物館, 2000, 『慶山 林堂地域古墳群』V와 同, 2002, 『慶山 林堂地域古墳群』VI 參照)

59) 이하 임당지역 인골의 판단은 2000년 KBS 역사스페셜 순장 프로그램을 위해 실시된 부산대학교 김진정 교수의 감정에 따른다.

을 의미하는데, 어떤 사회적 격변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을 뿐 더 이상의 해석은 현재로서 불가능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당시의 순장자는 노예로 볼 수 있는 증거는 없으며 대부분 근시적 존재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 근시적 존재에는 시동, 시녀, 유모 등이 주곽에 순장되고 호위무사나 재산의 관리자 등이 부곽에 순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근시적 존재를 家屬이라는 입장에서 노예로 볼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출신이 어떠한지 이미 간층의 가족으로 채택된 이상 그들의 신분은 이미 상승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일반적인 노동에 종사했을 노예와는 구별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V. 결어

영남지방의 순장은 3세기 후반 또는 4세기 초에 시작되고 있다. 이 시기는 각지에 방어적인 성격의 토성 등장, 도질토기 발생, 경주식 목곽묘와 김해식 목곽묘의 분화 등 어떤 획기적인 사회변화를 수반하고 있던 시기이다. 순장이 부여쪽의 영향이었는지⁶⁰⁾는 아직 검토의 여지가 있으나 순장의 발생은 격변의 사회현상으로서 영남지방에 출현한 것이 된다.

이렇게 발생된 순장의 풍습은 고층단계에 들어서면서 영남지방 고층의 보편적인 장법으로 채택되었다. 특히 신라권에서는 경주를 중심으로 부산, 창녕, 대구, 경산, 의성, 영덕 등 각 지방에 널리 퍼져 있었다. 그리고 6세기 신라의 체제정비를 통한 중앙집권국가로의 출발을 기점으로 해서 점차 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순장자를 어떻게 죽였는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단지 순장자의 배치형태는 5개의 형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묘제의 변화상과 함께 수반된 것이면서 변화상도 감지된다. 즉 복천동형, 경주형, 임당형과 달성형, 양산형이 순차적으로 발생한 것이 확인된다. 또 이러한 형식은 고층단계의 지역성과도 연계되는데 낙동강 하류(복천동형), 중류(달성형), 경주(경주형), 경주의 주변(임당형) 등으로 지역성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다.

신라권 순장묘의 주피장자는 경주의 경우 왕과 왕족, 최고의 귀족 등으로, 지방의 경우 소국 단위 또는 별읍단위의 간층과 그 가족집단이 되고 경주를 중심으로 볼 때, 경주에서 외부로

60) 申敬澈, 2000, 「앞글」 柱 11)

향하는 제1의 결절지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의성, 경산·대구, 창녕, 양산, 보다 이른 시기의 부산)들의 묘가 그 외 지역들의 묘들에 비해 순장자 수가 많은 특징이 있고 이것은 착장유물과 부합되어 당시 지방의 간층들이 위계화되어 있었음을 알려준다.

착장유물 등으로 분석한 결과 신라의 경우 노예가 순장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순장자는 모두 근시적 존재인 시동, 시녀, 호위무사, 재산관리자 등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노예가 순장되지 않았음은 일반적으로 노예의 순장이라고 해석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에 배치되는 것으로 당시의 사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임당지역고분군에서 출토된 인골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면 순장에 대한 실상에 보다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과제로 남기며 글을 맺는다.

The Burial of the living with the dead in Silla Tomb

Kim, Young-Sung

The Burial of the living with the dead in Yeongnam Region began to appear between the late 3rd and the early 4th centuries when dramatic social changes, such as the emergence of fortresses, stoneware, and the division of Gyeongju style and Gimhae style outer coffin tombs, took place. In the High-mound tomb Period, this burial method began to be popular in Gyeongju, a capital city of Silla, and her peripheries. After the 6th Century when Silla became a centralized state though the improvement of political and social structures, this burial method began to disappear.

It has unknown how the living for the dead master of the tomb were killed. However, in terms of burial system, this type of burial method seems to have emerged gradually and became popular with regional variations such as the basins of the lower reaches and middle reaches of the Nakdong River as the arrangement of the dead bodies can be divided into five types (Bokcheon-dong, Gyeongju, Imdang, Dalseong, and Yangsan styles).

On the basis of grave goods which were worn by the dead master of this type of tomb, the owners of the burial in Gyeongju seem to be kings, the members of royal family and people of upper ruling classes, while those in peripheries the Khans and their families. The Khan ship was passed down to the next generation in tributary states and towns. Centering around Gyeongju, the first intersection areas (Uiseong, Gyeongsan, Daegu, Changnyeong, and Yangsan) outside Gyeongju produced the graves which are characterized by the inclusion of a large number of human sacrifice, compared with other areas. This fact and grave goods indicate that Khans in the peripheries at that time were hierarchically ranked.

According to the analyses of grave goods worn by the corpses exhumed, in Silla slaves were not buried alive with their dead master but people close to the master such as servants, maids, guardians, and an administrator of property were buried alive with the owner of the tomb. As the fact that slaves are not buried alive with their dead master contrasts to the conventional belief that the bodies inhumed with the dead master were slaves, new interpretation about the society at those days is required.